"비명에 간 재훈이가 드립니다"

40대 부부 소쩍새마을에 돼지저금통 보시

쏟아지는 동전과 함께 한통의 편지가

"불법 실천하는 아들로 다시 태어나길"

최근 강원도 원주 소쩍새마을에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부부가 찾아왔다. 스님을 뵙고 싶다는 요청에 소쩍새마을 총무부장 묘전스님이 두 사람을 맞았다. 부부는 묘전스님을 보자마자 빨간 돼지저금통 하나를 꺼내서는 떨리는 손으로 저금통을 건넸다.

"우리 재훈이가 드리는 겁니다."

이 단 한마디만을 남기고 부부는 훌쩍 자리를 떠났다. 도대체 어디서 온 누구고, 왜 저금통을 내놓았을까. 묘전스님과 소쩍새마을 관계자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돼지저금통을 깨자 쏟아지는 동전 속에서 한 통의 편지가 나왔다. 사연은 '승가원 원장님께 올립니다'로 시작됐다.

"둘째 아이가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준비하던 중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는 나누었지만 가난 때문에 몇 푼의 돈 조차 나누지 못한 게 얼마나 마음에 사무치던지. 고등학교 다니면서 헌혈도 많이 하고 아르바이트하면서 어렵게 공부하던 아이였는데…. 아빠 담배 값 절약하고 제 형도 버스 값 아껴 모았습니다. 저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며 살고 싶다고 했었는데, 가난해서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전북 고창군에서 조그만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가난하지만 단란하게 살았던 네 식구의 평화는 2년 전 둘째 아들 재훈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깨지고 말았다.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 행복하게 해드리겠다던 재훈이의 빈 자리는 가난보다도 더 어두운 그림자로 남았다.

돌아가신 부모는 땅에 묻고 먼저 간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했던가. 마당을 쓸면서도, 부엌일을 하면서도 흐르는 눈물과 함께 바닥에 주저앉곤 했던 어머니. 기왕 간 길, 저 세상 구경 다하고 다시 오면 소쩍새마을에 와서 돼지저금통 보고 '나도 나누고 살았구나'라고 생각하라고, 남은 세 식구는 동전 하나하나에 사리도록 아픈 그리움과 재훈이의 소망을 담았다.

'이 돼지는 좋은 일에 참여합니다.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 서재훈 이름을 다시 보게 하옵소서' 돼지저금통에 삐뚤삐뚤 적힌 글귀가 소쩍새마을 식구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어머니가 쓴 편지의 마지막은 이렇게 이어졌다.

"부처님 말씀 실천하는 아들로 다시 태어나길 간절히 비옵니다. 꼭 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삼보에 귀의합니다. 부 영섭 모 임금례 형 서정일."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그림=김영민

동국대 총장후보 유세전

불교병원 조속개원등 공약

동국대 제15대 총장 후보 추천선거 유세가 6일 중강당에서 300여명의 교수,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정견발표회에서 정병조 교수(윤리문화학과)는 총장평가제 실시, 발전기금 700억원 모금, 경주캠퍼스 자율권 확보, 불교문화센터 건립, 일산병원 특화경영을 약속했다.

홍치유 교수(물리학과)는 투명한 인사와 행정, 불교병원 개원, 일산캠퍼스 생활관 강의동 신축, 교직원 복지 강화, 신입생 80% 학과별 모집 등의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표방했다.

이어 홍기삼 교수(국문학과)는 특성화 전략 수립, 학부제 재검토, 교원평가제도 개선, 불교병원 개원, 경주캠퍼스 교육인프라 구축, 재정확충 등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조희영 교수(경영학과)는 인사제도의 합리적 개선, 우수교원 확보, 이공대 종합발전계획 수립, 책임시간 조정, 불교종합병원의 합리적 개원, 경주캠퍼스 대학원 증설을 내걸었다.

한편 선거는 20일 10~19시 중강당에서 실시된다. 김원우 기자

불교정보화협의회 5일 창립

정보화 저변확대위한 각종사업 전개

불교정보화협의회(회장 현성)가 5일 서울 불교방송 대법당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 불교방송 이사장 도후 · 조계종 기획실장 종훈 스님 등 교계 지도자 스님들과 불교진흥원 서돈각 이사장, 한나라당 불자회장 하순봉의원, 문화관광부 윤형하 종무실장, 불교방송 김규철 사장, 불교TV 이수덕 사장, 현대불교신문사 김광삼 사장 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창립대법회에서 회장 현성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정보화협의회는 정보화 시대에 불교가 적절히 대응하고 선도해 나가기 위한 시대적 사명감으로 창립된 것"이라며 "불교계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의 저변을 확대하는 각종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성스님 인터뷰 3면> 임연태기자

◇불교정보화협의회는 5일 불교방송 대법당에서 창립법회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자비의말씀 게시판

충북 공공시설 설치

지하철과 철도 역사에 설치된 풍경소리 자비의 말씀 게시판이 충북지역 공공시설에도 설치됐다.

'법을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대표이사 성운)'는 청주시내 주요 공공장소에 게시판을 설치, 퇴직한 불자들의 모임인 정암회가 관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정암회가 주관해 1차로 청주시청 및 구청 민원실, 충북도청 민원 · 휴게실, 충북대 학생회관, 청주우체국, 청주의료원, 청주성모병원 등 21개 공공장소에 설치를 이미 마친 상태다. 풍경소리는 향후 충북도내 공공장소에 자비의 말씀 게시판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봉은문화센터 준공식

강남 봉은사(주지 원혜)는 7일 조실 석주스님, 원로의원 천운스님, 전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스님, 고은 시인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은문화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8년간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준공된 봉은문화센터는 지하 4층, 지상 3층, 건축면적 932평, 연면적 5,666평의 대규모 철근 콘크리트 시설로 건립됐다. 봉은문화센터는 시민선방, 각종 문화교실, 연회장, 사무실, 회의실 등으로 이루어졌다. 김원우 기자

수경 · 지율 스님, '람사협약' 총회 기간중(17~25일) 스페인서

천성산 화엄늪 살리기 3보1배

새만금간척 · 경부고속철 부당성 항의

수경 스님(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과 지율 스님(양산 내원사)이 새만금 간척사업과 경부고속철도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 스페인에서 '3보 1배'를 한다.

수경 · 지율 스님은 17일부터 25일까지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리는 제8차 람사협약(습지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문규현 신부 등과 함께 3보1배, 대형사진 전시회, 플래카드 게시, 선전물을 배포하는 등 새만금 갯벌과 천성산 화엄늪 보존을 위한 활동을 펼친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환경 NGO 활동가 15명과 함께 참석하는 람사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두 스님은, 총회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세계 NGO 습지회의에 참석해 새만금 갯벌과 금정산 천성산의 위기를 토론회 등을 통해 세계에 공개한다.

또 정부 간 회의인 람사협약 당사국총회 기간에 회의장 주변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와 포럼을 통해 간척 사업과 고속철 건설로 인한 한국의 환경파괴를 주요 의제로 부각시켜 공감을 얻은 뒤 환경보존을 위한 국제적인 NGO 연대를 조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만금 갯벌과 화엄늪 보존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제안, 당사국총회에서의 채택을 추진한다.

남동우 기자

경주 골굴사 선무도대학

일반 · 청소년 겨울수련회

경주 골굴사(주지 적운) 부설 선무도대학에서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겨울 수련회가 개최된다. 12월 1일부터 3개월간 이뤄지는 겨울 수련회는 인반수의 수행법,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참선 등을 실시한다. 또 초발심 자경문과 부모은중경 강의를 통해 심성도 정화한다. (054)745-0246 남동우 기자

서의현 전 총무원장 공석에

지난 94년 멸빈된 서의현 전 조계종 총무원장(사진 앞줄 오른쪽)이 7일 천태종립 금강대학교 개교식 내빈으로 테이프 커팅식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경북지역의 한 토굴에서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던 서의현 전 총무원장은 95년 불교방송이사회 이후 공식행사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으며, 밝은 표정으로 스님들과 인사를 나눴다. 김철우 기자

고침 본지 394호 6면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명단에서 지민스님 강화 보문사 주지를 보문사 전 주지로 바로잡습니다

미타사 수행환경 보상협의 결렬

서울 보문동 미타사(주지 자원) 수행환경 침해에 따른 보상 협의가 결렬됐다. 5일 보문제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조합장 정지원) 사무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미타사측은 △주출입구 차량 진 · 출입 원천 통제 △재개발구역 남 · 서면의 구획담장 미타사측 의견에 따라 시공 △103동 벽면 문양 도색 △거주승의 사생활 보호 위해 104동, 105동 등에 시야 제한장치 강구 △사찰측이 지정한 소유토지에 실평수 50평, 불교 전통양식에 따른 목조와즙 대체 법당 건립 등을 재개발조합측에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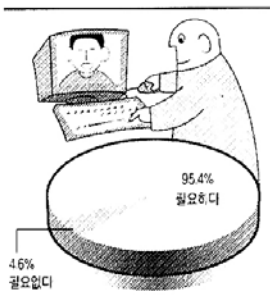
자원스님, 정지원 조합장, 황진하 현대산업개발 상무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조합측은 주출입구 차량 진 · 출입 원천 통제 외에는 4개 항목에 난색을 표명, 결렬됐다. 다음 협의는 14일 미타사에서 열린다. 남동우 기자

불자의 생각

사이버 포교사

거의 모든 네티즌 불자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할수 있는 사이버 포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7명이 동참한 네티즌 설문조사에서 사이버 포교사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라는 질문에 83명(95.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없다는 의견은 4명(4.6%)에 불과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는 것이 좋겠는가 라는 질문에는 49명(57.0%)이 전문교육기관에서 배출, 22명(25.6%)이 종단이 시험 후 자격증 발굴, 15명(17.4%)이 자율 활동에 맡겨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두식 기자



응답자 95%가 "필요하다"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태극전사들이 먹는 수신토종오가피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주)수신오가피 대표 / 성 광 수氏

월드컵 축구국가대표선수들과 이번 국가대표선수들이 먹는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꼭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의 사진을 확인하십시오. 품질에 대한 자부심으로 한봉지 한봉지마다 인쇄되어 있는 이 사진이 없다면 국가대표선수들이 먹는 '수신토종오가피'가 아닙니다.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37억 아시아의 축제, 또 한번 대한민국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선수들 곁에는 수신토종오가피가 있었습니다. (주)수신오가피는 대한체육회를 통해 한국선수단의 체력증진을 위해 토종오가피 2000상자를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한 토종오가피는 6월 2002 한일월드컵 축구대회에서도 태극전사들이 복용했었다. · 동아일보 9월 25일자 보도 ·

월드컵 축구국가대표선수들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오가피를 심으시려면 서두르십시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오후2시에 직접 농장견학회를 열고 있습니다.

한번 심어놓으면 수십년 수확이 가능한 토종오가피! 직접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서두르십시오.

자료무료신청 (02)2201-3333